

Broken Time 스타일 드럼연주에 관한 연구 -Roy Haynes, Mel Lewis 를 중심으로-

조규원,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뮤직트레이너학과

e-mail:jo9won@hanmail.net,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Drum Playing of Broken Time Style -Focused on Roy Haynes, Mel Lewis-

Kyu Won Cho,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음악을 추구한 밴드에서 활동했던 드러머인 Elvin Jone, Paul Motian, Roy Haynes, Mel Lewis, Jack DeJohnette와 같은 사람들은 단순히 드럼만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드럼 연주를 통해 밴드의 사운드, 음악적 형식과 느낌까지도 변화시킨 연주자들이었다. 또한 드러머이면서도 때로는 마치 솔로 연주자인 것처럼 음악 전체의 흐름을 이끌기도 했다. 이렇게 훌륭한 드러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준의 곡들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연주 스타일은 이미 충분히 기틀이 와성되어 있는 Be-Bop 스타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미래의 드럼 연주 스타일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의 음악은 결국 20세기의 창조적인 음악이 절정에 이를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1. 서 론

음악은 미술, 언어, 그리고 건축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진화하였다. 1950년대 후반은 음악에서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감돌 때 Be-Bop의 이상적인 모습이었던, 리듬섹션의 반주에 맞추어 복잡한 화성 진행에 따른 솔로로 연주하는 스타일이 15년 동안 지속되자 몇몇 음악가들은 점차 Be-Bop 스타일에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 선구적인 음악가들은 보다 열린형태의 음악적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쫓던 대표 음악가들은 그들의 연주에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색소폰 연주자 John Coltrane은 Be-Bop 스타일의 화성 진행의 절정을 보여준 앨범인 <Giant Steps> 을 1959년 녹음한 이후로, 점차 느슨한 스타일로 변화를 꾀했다. 역사에 길이 남을 Miles Davis의 음반인 <Kind of Blue> 도 59년에 녹음하였는데 여기에 Coltrane, 피아니스트 Bill Evans, 그리고 드러머 Jimmy Cobb이 참여하였다. 이 음반은 앞서 언급한 느슨한 스타일의 음악을 시도한 선구자적 앨범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음반에서는 한 조성으로 16마디나 되는 긴 프레이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긴 프레이즈들 속에서

리듬 섹션 연주자와 솔로 연주자가 예전만큼 화성 변화에 신경을 덜 써도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둘은 연주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Be-Bop이후의 스타일, 즉 Post-Bop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Roy Haynes와 Mel Lewis라는 두 명의 연주 스타일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들은 모두 Be-Bop의 달인들이었지만, 그 이후 스타일을 선도해나간 중요한 과도기적 연주자로 평가 받는다. 특히 Roy Haynes는 현대 드러밍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그의 연주는 지금 들어도 신선하고 세련되었다. 또 Mel Lewis는 오픈 비트(Open Beat)라는 중요한 개념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 연주자다. Roy는 그는 소규모 편성의 밴드에서 높은 피치의 드럼을 사용하여 바스락거리는 듯한 사운드로 연주했기 때문에 스냅, 크래클, 팝 (snap, crackle, pop) 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Mel은 대규모 편성 밴드에서 낮은 피치의 드럼을 사용하여 느슨한 사운드의 연주를 했는데, 모든 연주 스타일에 맞추어 연주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재단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960년대에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 잡은 브로큰 타임 (Broken Time) 스타일을 사용한 최초의 연주자라고 평가 받는다.

2. 본 론

WE THREE, Art pepper + Eleven 두장의 앨범에서 Roy Haynes와 Mel Lewis의 브로큰 타임의 특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2.1 WE THREE

[표 1] WE THREE

| 앨범명 : WE THREE | |
|---|---|
|  | |
| 발매연도 | 1959년 |
| 트랙 | 제목 |
| 1 | Reflection |
| 2 | Sugar Ray" (Phineas Newborn, Jr.) |
| 3 | Solitaire" (King Guion, Carl Nutter, Renee Borek) |
| 4 | After Hours" (Avery Parrish) |
| 5 | Sneakin' Around" (Bryant) |
| 6 | Our Delight" (Tadd Dameron) |



[그림 1] 트랙1 Reflection Intro

Roy는 하이햇을 대위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개념을 더 발전시켰다. 스네어는 규칙적이지만 위치를 바꿔가며 연주하고 있고 하이햇과 킥으로 그루핑 느낌을 주며 브로큰 타임을 표현하고 있다. 짧은 4마디지만 반복된 연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조금씩 노트를 채워가며 다른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길을 열어주고 그로 인해 음악이 다이내믹하게 변

화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는 것이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밴드의 리더들은 드러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비해 화성적인 리듬이 느리게 진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이 생성되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악기들이 전체적으로 교류하는 방식의 연주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드러머들은 더욱 완벽하게, 그리고 더욱 상상력을 발휘하여 연주를 해야만 했다. 이제는 드러머가 단순히 박자를 맞춰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을 위한 기본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2.2 Art pepper + Eleven

[표 2] Art pepper + Eleven

| 앨범명 : Art pepper + Eleven | |
|--|----------------|
|  | |
| 발매연도 | 1960년 |
| 트랙 | 제목 |
| 1 | Move |
| 2 | Groovin' High |
| 3 | Opus De Funk |
| 4 | Round Midnight |
| 5 | Four Brothers |
| 6 | Shawnuff |



[그림 2] 트랙1 Move Intro

위의 악보를 보면 심벌 패턴은 불규칙하지만 스네어와 베이스 드럼 파트가 그루브를 완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박자와 음악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Mel은 이러한 연주를 통하여 드럼세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악기로

인식해야지 여러 악기의 집합체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개념은 훗날 Elvin Jone, Tony Williams, Jack DeJohnette와 같은 연주자들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 드럼 사운드와 그루브는 단순히 라이드 심벌과 하이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럼세트 전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박자와 리듬을 연주하는 것은 이전의 전통적인 정박에 가까운 심벌 패턴 보다 음악이 더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나아가 열려있는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2.3 Pictures

[표 3] Pictures

| 앨범명 : Pictures | |
|---|-----------|
|  | |
| 발매연도 | 1977년 |
| 트랙 | 제목 |
| 1 | Picture 1 |
| 2 | Picture 2 |
| 3 | Picture 3 |
| 4 | Picture 4 |
| 5 | Picture 5 |
| 6 | Picture 6 |

첫 8마디는 인트로이며 곡 전반의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John의 기타 연주가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라이드 하이햇 스네어 킥의 조화가 Bop기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16마디 이후부터 스네어 악센트가 많아지며 하이햇오픈을 통해 점점 빌드업을 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3연음 콤비네이션을 표현하면서 음악적 주제가 끊기지 않고 식상해지지는 프레이즈나 예시가 없이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 Jack의 트레이드 마크이며 아직도 그의 연주는 신선하게 느껴진다.

3. 결론

지금까지 드러머의 (Broken Time) 스타일 연주 테크닉 분석을 해본결과 Be-Bop 스타일로부터 박자를 맞추어 연주하는 것과 컴핑 연주가 거의 합쳐졌다는 점이 Be-Bop 스타일 보다 진화된 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Bop 스타일 연주에서 컴핑 악센트로 정박자를 맞추어 연주하는 flat한 스타일은 완전히 새로운 박으로 대체된 것은 아니지만 리듬적으로나 다이내믹적으로 변형시킨 다중 보이스의 맥박으로 바뀌었다.

Bop시대 이후의 드러머들은 이렇게 새로운 맥박을 통하여 향후 음악이 더욱 발전하고 합주를 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에너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 때 드러머들은 매우 다양한 음향과 리듬을 사용하여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음악적 질감과 밀도를 형성하는데 그 덕분에 밴드가 합주할 때의 음악적 분위기와 색깔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BETOND BOP DRUMMING
- [2] <https://en.wikipedia.org>
- [3] Mark C.cridley 채즈총론 삼호ETM
- [4] Miles Davis. 성기완(2013) MILES DAVIS 집사재
- [5] <https://www.allmusic.com>



[그림 3] 트랙3 Picture Drum Solo